리스크와 이익 사이
기술주 차별화 랠리 지속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 hyseong@ls-sec.co.kr

나스닥과 다우 차별화, S&P500 보합권 마감

- 미 증시는 DOW -0.13%, S&P500 +0.12%, NASDAQ +0.20% 보합. 이란 사태 진전에 대한 실망감과 유가 상승이 시장 전반의 하방 압력. 다만 엔비디아(+4.0%), 마이크론(+5.6%), 샌디스크(+8.1%) 등 반도체 업종 랠리에 힘입어 기술주 중심 강세
- 11 개 섹터 중 커뮤니케이션서비스(+0.94%), 금융(+0.65%), IT(+0.46%) 3 개 업종만이 상승 마감. 부동산(-0.84%), 경기소비재(-0.76%) 등 8 개 섹터는 부진

기대와 우려와 공존하는 이란 상황

- 교착상태인 이란 협상 상황을 두고 정부 인사와 언론에서 희망적 메시지와 과격한 언사가 동시에 발생 중. AP 통신은 최근 미 정부의 제안에 핵협상을 나중으로 미루는 단계적 휴전 내용을 담고 있다 보도. 한층 현실적인 협상 스탠스 전환에 기대감 부각
- 한편 이란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계좌 개설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. 특히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제를 용납할 수 없으며 추가 제재 가능성도 시사
- EU 측의 목소리는 에너지 위기와 미국 비판으로 연결. EU 집행위는 이란 전쟁 이후 석유 및 가스 수입에 추가 320 억달러 지출했음을 밝힘. 또한 전략적 전환으로 SMR, 대체에너지 등을 언급했는데 기존 ESG 논리가 아닌 더 저렴한 에너지 생산의 명분

견조한 흐름의 1Q26 어닝시즌, 본무대 임박

- S&P500 기업 중 28%가 실적발표를 완료한 시점. 이중 84%가 EPS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장기평균치인 76%~78%를 넘어서는 모습. 기대보다 견조한 어닝시즌 지나는 구간. 금융, 산업재, 헬스케어, IT 부문의 기업들이 기여했으며 특히 헬스케어는 기존 기대치가 낮았던 영역이기에 고무적. 실적 발표한 13 개 헬스케어 중 인튜이티브서지컬, 애벗래버토리 등이 대표 호실적 종목
- 금일 버라이즌을 포함에 금주 S&P500 180 개 기업의 실적발표 예정. 특히 현지기준 29 일 장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, 알파벳, 메타, 아마존 4 개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발표. 30 일에는 CEO 교체 예정인 애플의 실적 예정되어 향후 로드맵 확인 가능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MU	마이크론	+5.6%	멜리우스 리서치가 마이크론과 샌디스크(+8.1%)에 '매수' 의견으로 커버리지 개시. 2년 목표주가를 각각 $700, $1,350로 제시. AI 사이클로 인해 2030년까지 메모리 수요가 높게 유지될 것이라 분석
QCOM	퀄컴	+0.1%	오픈AI와 스마트폰 프로세서 개발 협력설(2028년 양산 목표)에 주가 강세보였으나 장 초반 상승분 반납하며 강보합 마감. 애플(-1.3%)은 경쟁 심화 우려에 약세
TSLA	테슬라	+0.6%	금요일 SEC 공시를 통해 일론 머스크 CEO의 2018년 보상안과 관련된 보통주 약 3.04억 주의 등록 절차 밟음. 향후 머스크가 옵션 행사 시 해당 주식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함을 의미
NUE	뉴코	+0.3%	장 마감 후 실적 발표. 1분기 매출 $9.50B (+21.3% YoY)로 컨센($8.86B) 크게 상회. 전 사업부문 호조로 긍정적 2분기 가이던스 제시
VZ	버라이즌	+1.6%	실적 발표. 1분기 EPS와 가입자 수 컨센 상회하며 주가 강세. 후불폰 가입자 증가와 광대역 부문 성장이 경쟁사 AT&T 및 티모바일 대비 경쟁력 입증. 매출은 $34.40B로 컨센($34.89B) 하회했으나, EPS는 $1.28로 컨센($1.21) 상회. 또한 연간 조정 EPS 가이던스를 기존 $4.90~$4.95에서 $4.95~$4.99로 상향 조정
DPZ	도미노피자	-8.9%	실적 발표. 1분기 매출, EPS 모두 컨센 하회. 중국 투자 관련 미실현 손실로 인해 1분기 이익 감소하며 급락. 또한 1분기 미국 내 동일매장 매출 성장률(0.9%) 컨센(2.3%) 크게 하회. 해외 매출은 0.4% 감소. 연간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. CEO는 경쟁사들의 1분기 매출 부진을 예상. 이번주 스타벅스, 얌브랜드, 치폴레 등 실적 발표 대기